

예측불허의 세계에서 헤엄치기



머 리가 뛰어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정의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전 사장인 타나 슈티블로 베더는 자본시장 리스크 자문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사장이었으며, 지금은 캐스톤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가 Risk Magazine(1999년 2월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잘한 일이다.

“리스크의 화법은 불행의 화법과 같다. 리스크를 지나칠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 마크 트웨인이 10월에 대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할 때, 그도 위와 같은 주제를 놓고 고심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밖에도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 그런 달이다.”

트웨인과 베더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같다. ‘리스크는 먼지와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주 저편에 있다. 그러므로 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잘 처리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의 정밀과학이 아니라, 일련의 리스크와 보상수단과 시장의 취약성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절차에서 발전해온 원리이다. 이들 수단에는 value-at-risk, 휘발성, 베다 방식, 옵션 가격 모형, 샤프 비율, 리스크 감시절차, 연계매매 전략이 포함된다.(역주 Value-at-risk: 위험기준가치 평가법에 의해 계산된 값, 통칭 VaR.)

과거에 우리에게 위안이 주었던 이러한 양적 수단은 지난해 러시아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련된 상대방들은 아직 “채무불이행”이란 정의에 동의하지는 않

았지만), 장기 자본회사의 헤지 펀드가 거의 붕괴되었을 때 흔들렸다. 이제는 리스크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와 통찰력이 매우 소중한 요소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인터넷에 성패를 걸다

A는 Risk Magazine의 웹사이트(www.riskpublications.com)에서 금융 리스크 관련 주제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Risk는 경제 전문서적과 경제전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걸출한 출판사이다. 이 웹사이트에는 Risk Magazine의 커버스토리 발췌문과 과거 1997년까지 잡지에 실었던 기사목록이 전부 들어있다. 최근의 커버스토리에는 “은행들 간의 마찰”과 “해외무역: 새로운 유럽을 겨냥한 전략선택”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금융 리스크 관리에 관한 입문서를 읽고 싶다면, Risk에서 발간한 책들은 상당히 추천할만 하다. 웹사이트에는 Risk 출판사의 책제목과 전부 실은 카탈로그가 올려져 있는데, 그 주제는 금융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신생시장투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들 책에서는 신용 리스크, 내부 모형화, value-at-risk, 경영상의 리스크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전자 출판물, 디렉토리, 가이드, 회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색인되어 있다. 필자는 최근에 Risk Magazine의 대표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Risk Magazine社가 어디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잡지 전문(全文)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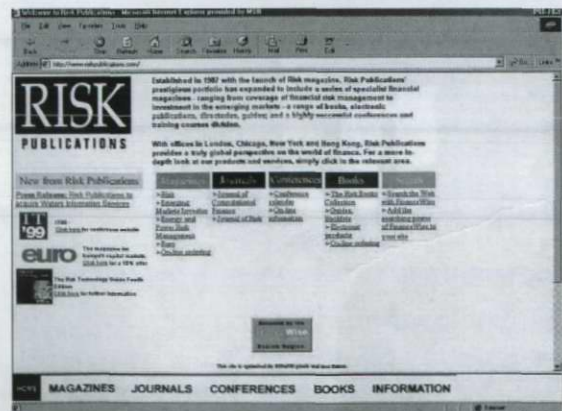
지출관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FinaceWise(<http://www.finacewise.com>)는 금융정보 공급자들이 특화된 검색엔진이다. FinaceWise 색인 인터넷 사이트에는 금융계와 리스크 관리집단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와 신디케이트 금융과 같은 주제들이 전부 색인되어 있고, 각 사이트의 목록들에서는 편집부원의 평가가 있다. FinaceWise가 Risk 출판사 소유라는 것과 그 결과 검색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국제 조정 은행

리스크 관리, 파생금융상품, 신용 파생금융상품, 쟁점이 되고 있는 상대방, 또는 세계 전체 은행의 영향에 관련된 문서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국제 조정 은행 사이트(<http://www.bis.org>)는 맨 처음으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출판물, BIS 리뷰,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크기에서부터 BIS 적정 자본 가이드라인에 이르는 논문들과 더불어 BIS 출판물(회의 서류, 경제논문, PDF 형식의 운영서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방대한 문서를 비롯하여 매력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Barra(<http://www.barra.com>)사는 분석모델, 소프트웨어, 컨설팅, 자금관리 서비스에 전문화한 25년 전통의 기업으로서 BARRA모형과 지표에 관련된 BARRA사의 예측 베타와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S&P/BARRA 계열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 있고, 다양한 기간별 통계자료, 기초지표와 섹터 가중치, Barra 신생 시장 휘발성 지표의 바탕이 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표 배합과 구성 방법론도 여기에 나와 있다.



▲ Risk Magazine의 웹사이트(<http://www.riskpublications.com>) 초기 화면

Value at Risk(VaR) 소스에 관한 정보 메타사이트. 이 사이트(<http://www.gloriamundi.org>)에서는 훌륭한 VaR 서적 목록, 기사, 학술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VaR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RiskMetrics 출판사, 리스크 관련 관례와 규정, 회의와 교육과정으로 링크할 수 있다. 만약에 VaR을 잘 모른다면 VaR FAQ를 읽어보거나 온라인 VaR 서적을 방문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도 리스크와 VaR 관련 순용관례, 규칙, BIS 조사표, IOSCO, 국가표준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는 VaR 관련 논문 목록을 지원하고 있다.

위험부담이 큰 사업

세계 리스크 전문가 협회(GARP)는 금융 관리, 이벤트, 리뷰 등급, 사이버 서적(<http://garp.org>)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리스크 관리 소스로 접속할 수 있는 긴 링크 목록이 들어있다. 금융 상품 사이트인 CIBC School 사이트(<http://schoolp.cibc.com>)는 인터넷상의 또 하나의 보물이다.

이 알찬 사이트에는 유용한 금융관련 용어집,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관련 발행기사, 업계의 행사와 발전상을 요약한 광범위한 연감, 다른 금융 웹사이트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IFCI Risk Watch(<http://risk.ifci.ch/index.htm>)는 국제 금융/상품 협회에서 발원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BIS, IOSCP, G-30의 선택 조정 서류의 본문, 광범위한 용어집, 13포인트 "리스크 관리" 대조표가 들어 있다. 신용 리스크와 문서화 리스크 같은 핵심 개념에 대한 논문과 함께 게리 개스티노의 1996년판 금융 리스크 관리 사전의 전문(全文)이 여기에 있다. 이 사전은 구식이 되긴 했지만 아직 쓸만하다.

임시 분석 사이트(<http://www.contingencyanalysis.com>)에서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정보를 1,000페이지 이상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Value at Risk, 신용 리스크 관리, 금융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 페이지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온라인 연구에는 에너지 시장에 VaR을 응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리스크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것들에 대한 것은 국제 금융 기술 협회(IAFFE)의 놀이실(playroom)(<http://www.iaffe.org>)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놀이실에서는 양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해준다.(여러분들 각자가 밤에 100개의 스와프(swap) 계약서를 다운로드하고 저장권 모델을 만드는 꿈을 꾸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후원 받은 IAFE 이벤트, 정책, 간행물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실패를 불러오는 폐해가 무엇인지 대한 시각적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RiskCare 사이트(<http://www.riskcare.com>)를 방문하기 바란다. 이 사이트에는 일간 리스크 관리 뉴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편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너 리슨을 감옥에 가게 한 영화도 여기에 들어 있다. RiskCare 사이트는 FinanceWise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 준비 은행 제도의 총재단 사이트(<http://www.bog.frb.fed.us>)에서도 또 하나의 주요한 리스크 관리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준비 은행에서는 과거에 리스크 관리/신용 관리 연구논문을 발간했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많은 보고서와 운영 서류의 본문 전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베

이지 북, 많은 최근 연구논문, 통계자료, 지부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 이외에도 흥미를 끌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주사위 던지기

국제 스와프/파생금융상품 협회 사이트(<http://www.isda.org>)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 ISDA 사이트는 시장조사, 출판물목록, 회의고지, 추천도서, 유용한 링크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주요 문서들의 전문(全文)도 포함된다면 좋을 것이다. 30-G(The Group of Thirty) 사이트(<http://www.group30.org>)는 보다 많은 전문(全文) 문서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웹사이트이다.

30-G는 1978년에 사설 비영리 국제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학계의 상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30그룹 웹사이트는 그 간행물과 세미나 자료에 대한 카탈로그를

리·스·크·관·리·실·패·역·사

1673: 툴립 구근 열풍

네덜란드인들은 툴립 구근에 완전히 혼을 빼앗겼다. 그리하여 그 표본을 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저축에 필적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시장이 만개했을 즈음에 툴립 가격은 5900% 상승했고 많은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근을 흡수할 시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지난여름 러시아 GKO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일어난 일과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1720: 남해 사기사건

이렇다할 이력이나 자산도 없는 한 회사가 투자자들을 꾀어 태평양 영토 내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가치한 주식을 점점 더 높은 값에 팔도록 하였다. 이 특이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런던 주식 시장은 발라 뒤집혔고 남해 사기사건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거의 백년이 소요되었다. (어떤 분석가들은 현재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터넷 주식을 18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

1963: 샐러드 오일 스캔들

재무관 토니 드 앙젤리스는 뉴저지 정제소에 어마어마한 양의 샐러드 오일을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창고회사는 오일 보관 영수증을 발행했다. 결국 그런 샐러드 오일이 공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손실액은 그 당시의 순 가치보다 더 컸다. 이 회사와 관계 은행들은 सभी 점검을 태만히 하여 실제로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6: ZZZ 베스트 카페트 스캔들

ZZZ 베스트사는 16세의 신동 배리 맨코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언론에 의해 천재적인 사업가로 소개되었다. 그는 1986년에 자신의 카페트 세탁회사를 공개했다. 이 회사의 IPO 강령에는 기업의 86%가 보험 보상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회사의 사장 하나는 보안법 위반과 돈 세탁과 사기 경력이 있는 자였다. 결국 배리 맨코우에게는 25년형이 언도되었다.

1898: S&L 위기

이 때는 Lincoln Savings회가 미국 연방 규제위원들에게 압류되었던 해이자, S&L 위기가 일반했음이 확인했던 해이다. 찰스 키팅은 1984년에 링컨회를 인수하여 주택 저당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로 사업의 본질을 바꿨다. 이후에 규제위원들은 링컨회가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6백만 달러를 초과하여 직접투자를 했음을 밝혀냈다.

1991: 샐러몬 형제 채권 스캔들

존 굿프린드 의장을 비롯한 샐러몬 형제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허위 가격입찰에 대해 정부에 제 때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 발각된 후에 사임했다.

1991: BCCI 스캔들

국제 신용상업 은행은 워싱턴의 최대 은행소유 회사인 First American BankShares사에서 주식 대다수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하여 고발되었다.

1994: 키더 피바디 대 실패

키더 피바디의 무역상, 조셉 제트가 1991에서 1994년까지 3억 5천만달러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익을 얻었다하여 고발되었다.

1995: 베어링의 파생금융상품 스캔들

닉 리슨의 무역 활동은 그가 13억 달러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입힘으로써 베어링사를 몰락시켰다.

1996: 수미토모 구리 스캔들

수미토모의 무역상이 10년 이상 무면허로 구리 무역을 하였고,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하여 고발되었다.

1997: 넷웨스트 손실

웨스트민스터 국립은행의 지부 투자은행인 넷웨스트 마켓은 선물 거래장부에 5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기업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전부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많지 않다.

쓰레드니들 거리의 대표적인 노마님이신 영국은행의 웹사이트 (<http://www.bankofengland.co.uk>)에는 통화정책 위원회 회의의 최근 연설과 의사록, 재무성 채권 경매 성과, 인플레이션 보고서, 출판 간행물, 통화/대출 통계자료, 운영 서류, 규제 서류를 포함한 전문(全文) 문서들로 넘쳐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뉘베 분데스 은행의 영어 사이트(http://www.bundesbank.de/index_e.html)에는 랜드 중앙은행 링크, 출판 간행물, 연설문, 월간 경제 보고서, 통계자료, 전문적 논제, 규제적 견해 진술서가 들어있다.

CFO 매거진과 자금/리스크 관리 사이트(<http://www.cfonet.com>)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자금관리를 주제로 다룬 발췌 기사 전문(全文)을 제공하고 있다. FinWeb(<http://www.finweb.com>)은 제임스 R. 가본 박사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금융/경제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는 경제학/리스크 관리 저널, 운영 문서로의 링크가 있다. 필립 조리온의 오렌지주 사

례(리스크 관리 대 실패 사례)는 캘리포니아 대학 어빈 경영대학원 사이트(<http://www.gsm.uci.edu/~jorion/oc/case.html>)에서 이용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금융-리스크 관리기법 연구의 주요 요소이다. 이들은 탄야 스티블로 베더가 인용한 불행(즉, 손실)의 분산을 돕는 은탄환이다. 파생금융상품은 다른 증권으로부터 그 가치가 파생되는 복합 금융 도구이다(다시 말해서 그 가격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구성하는 우선적 증권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파생금융상품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을 포트폴리오 보험이나 다양한 위험,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위험에 대비하는 연계매매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금융상품 도구들이 시장 리스크 또는 무역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나 연계매매 형태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선물(先物)과 옵션은 상품 리스크(예를 들어 유가 폭락)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통화 스와프는 두 개 이상의 통화간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용 스와프는 신용 손실(가령, 기업채권의 신용저하)에 대비한 연계매매로서 이용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악명 높은 오렌지주 사례를 비롯한 일련의 두드러진 사건의 주된 손실의 이유를 밝혀주었지만 90년대 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거래하고, 분석하고, 조언을 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언젠고 파생금융상품이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 중 조사해 볼만한 사이트는 Cato 연구소(<http://www.cato.org>)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는 다른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금융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10가지 신화"라는 제목을 가진 흥미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계약(특히, 장외 거래 계약에 반대되는 교환 거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선물 거래소, 옵션 거래소, 상품 거래소이다. 핵심 주자로는 미국 주식거래소(<http://www.amex.com>), 시카고 상품 회의소(<http://www.cbt.com>), 시카고 옵션 거래 위원회(<http://www.cboe.com>)가 있다. 시카고 옵션 거래 위원회 사이트에는 과거 가격 자료와 이 거래소에서 개발한 다양한 금융상품

1997: Bre-X社 채광 스캔들

토론토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Bre-X社의 중역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최대의 금광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후에 이 gold-salting(역주-금의 품질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음모가 드러났고 이 금광은 쓸모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신용사기 사건으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손실은 30억 달러였다.

1997년: UBS

오류 모형에서 생겨난 일부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4억 1천 2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됨.

1997: 스미스 바니

스미스 바니社의 이전 금융 컨설턴트가 투자자들로부터 4천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다 하여 고발되었다. 이 돈은 투자되는 대신에 휴스턴의 컴패스 은행과 뉴욕의 케이컬 은행 계좌로 들어갔다.

1998: 그리핀 무역회사

그리핀 무역회사의 무역상이 독일 채권 선물시장에서 8백만 달러를 잃었다.

1998: 러시아 채권시장 와해

러시아가 정부 부채 상환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주식 투매 현상이 돌발하였다.

1998: 장기 자본관리 모델 실패

존 멀웨더(샐러몬사의 이전 채권거래업자)에 의해 설립되고, 마이론 스크울즈와 로버트 머튼을 비롯한 다수에 의해 운영되던 헤지 펀드사, LTCM가 그 총 자산의 44%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방 준비 위원회는 일단의 국제 투자은행들이 이 펀드사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구제 계획에 개입했다. 연방 준비 위원회 의장 앨런 그린스핀은 구제 노력에 개입하게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문들이 들어 있다.

다른 거래소 사이트 중 방문할만한 곳으로는 커피, 설탕, 코코아 거래소(<http://www.csce.com>), 캔자스시 무역 위원회(<http://www.kcbt.com>), 미네아폴리스 곡물 거래소(<http://www.mgex.com>)가 있다. 주요 선도권과 지배권을 비롯한 규제 정보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사이트(<http://www.cftc.gov>)에서 찾을 수 있다.

런던에서의 파생금융상품

역사적으로 런던은 파생금융상품 무역업계의 중추였다. 그리고 런던 국제금융 선물(先物)/옵션 거래소 사이트(LIFFE)(<http://www.liffe.com>)는 최고의 사이트 중 하나이다. 이 사이트에는 헤드라인 뉴스와 통계자료, 쟁점 설명,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립된 파생금융상품 거래소 중 한곳에서 나온 정책 문서 전문(全文)이 들어 있다. 런던 금속 거래소 사이트(<http://www.lme.com>)는 방문할만한 또 하나의 사이트이다. 여기에는 매달 평균치, 결산 가격, 그래프, 과거 상품 자료가 나와 있다.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 계약 통상만을 독점적으로 다루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응용 파생금융상품 통상 사이트(<http://www.adtrading.com>)와 파생금융상품 전략 잡지 사이트(<http://www.derivatives.com>)이다. 조사해 볼 만한 다른 파생금융상품 소스에는 Derivatives Zine 사이트(<http://www.margrabe.com>)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파생금융상품 링크들을 위한 메타사이트로서 기능하고 있고, 파생금융상품 사전, 파생금융상품에서 유래한 유머, 자본 해석학 사이트(<http://www.e-analytics.com>)가 포함되어 있다. 이 상업 사이트

에는 선물 입문서, 옵션 업계, 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쪽에 걸기


파생금융상품이 90년대 초기 절반 동안 타격을 가한 금융 재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었다면, 주요 일간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지난여름 금융이 와해될 때 헤지 펀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헤지 펀드(Hedge Fund)는 역사적으로 비밀스러운 자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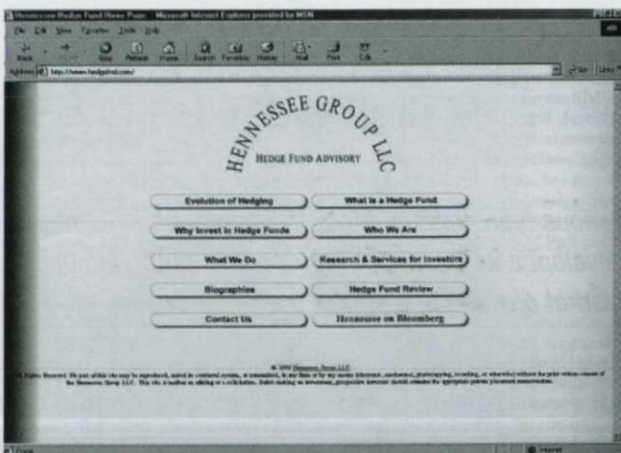
때문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헤지 펀드의 목록을 전부 아는 것마저도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에 들어 정보라는 관점에서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헤지 펀드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와 디렉토리가 여러 개 생겨났다.

여러 사이트 중 하나인 Hennessee 헤지 펀드 고문단 사이트(<http://www.hedgefund.com>)는 매우 우수하다. 이 사이트에는 Hennessee 헤지 펀드 리뷰 최근호 대부분의 "일부 전문"이 들어 있어서 검색해 볼만하다. 방문해볼 만한 다른 사이트에는, 전문 기사와 규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대체 투자관리 협회 사이트(<http://www.aimr.org>)와 헤지 펀드 연구소 사이트(<http://www.hfr.com>)가 있다.

이 연구소 사이트에서는 헤지 펀드 지표에 관한 최신 퍼포먼스 보고서가 들어 있다. 관리회계 보고서 사이트(<http://www.marhedge.com>)에는 헤지 펀드와 펀드사들의 펀드의 최근 퍼포먼스 순위가 들어 있다. 밴 헤지 고문 사이트(<http://www.vanhedge.com>)는 헤지 펀드 무료 정보와, 스타일 부문과 시장 부문에서의 최근 헤지 펀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건실한 사이트이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검색할 만한 헤지 펀드 사이트는 타스 매니지먼트 유한회사 사이트(<http://www.tassman.com>)이다. 이 사이트에는 헤지 펀드업계의 배경 정보, 퍼포먼스 자료,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소스의 목록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무료(!) 규제 문서, 가격전략 시리즈, 쟁점 해설, 사례 연구, 과거 자료, 퍼포먼스 순위로 접속 서비스가 목록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명성 확장, 시장 규제 철폐, 과거 십년 간 리스크 관리 분야의 주요 바리엔 정보자료로서 파생금융상품 유가증권의 유용성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 Hennessee 헤지 펀드 고문단 사이트(<http://www.hedgefund.com>) 초기 화면